

사이클극의 여성들*

김정애 (경희대)

I. 서론

전통적으로 역사는 여성에 대한 기록에 매우 인색하다. 특히 교회와 봉건 군주제라는 이중의 억압은 여성을 타자 및 주변부로 인식했다. 여성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침묵당하고 폄하내지는 과장되는 상황은 문학속의 여성을 재현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세 문학의 대표적 장르인 서사시, 로맨스, 파블리오 등에서 등장하는 여성의 역할이 가지는 한계는 『베어울프』(*Beowulf*)에 나오는 호로스가르의 왕비 웨알데오, 「기사 이야기」(*the Knight's Tale*)의 에밀리, 「방앗간주인 이야기」(*the Miller's Tale*)의 알리슨 등을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렇다면 이들 장르보다 더 민중적이고 관객과 직접적으로 호흡을 한 중세극은 여성을 어

* 이 논문은 2005년 경희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한 연구 결과임.

떻게 그리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본 논문은 출발한다.

연극의 소재로 성경상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작가에게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 중세 사이클극은 예수의 수난을 중심 사건으로 다루는 남성 중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브, 성모 마리아, 막달레나와 같은 여성을 제외하면 여성 인물은 거의 없으며 여성의 관심사도 다루지 않는다. 사이클극에 나오는 여성 인물을 연구하는데 걸림들은 이들의 성격이 이미 성경 속에서 죄의 유무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어 작가가 새롭게 창조할 여지가 매우 적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클극 작가들은 성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성을 등장시키는데 이로서 우리는 중세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성적 역할, 여성에 대한 수용 등을 알 수 있다. 중세에 팽배해 있던 여성혐오 전통과 여성의 이상화라는 모순의 공존은 그 시대의 산물인 중세 사이클극에도 반영되어 여성 인물들은 이브와 성모 마리아의 두 부류로 구분되어 묘사된다. 사이클극의 여성들은 아담을 속여 인간을 죄악에 빠트린 악의 화신인 이브와 인류를 구원할 예수를 낳은 가장 완벽한 여성인 마리아로 환원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구분은 각 인물의 개성을 무시하고 평면화, 정형화된 인물로 단순화시키는 것으로 이런 이분법적 해석이 정당한지를 검토하고 동시에 성경속의 여성 인물들을 어떻게 더 구체화 내지는 발전시키고 있는지를 연구의 목적으로 삼을 것이다.

기독교가 이미 여성을 이브 아니면 성모 마리아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재단해 놓은 상태에서 작가가 이런 틀을 바꿀만한 자유는 크게 없었을 것이다. 특히 중세극의 작가는 당시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초서, 랭랜드, 가워 등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작품을 쓴 작가와는 달리 익명의 성직자이거나 이에 준한 민간인이었을 것이므로 더 더욱 임의적 변형이나 창작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극작가의 익명성은 여성에 대한 묘사를 오히려 좀 더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 한편으로는 변화하고 있던 시대를 살던 당시의 여성을 오히려 사실적으로 담아내는 기회로 삼았을 수도 있다.

12세기 중반부터 여성 혐오 전통에 입각한 글들은 그 독자층이 성직자에서 일반인으로서까지 확대되었다. 다섯 번째 남편이 읽어주는 사악한 여성 이야기를

매일 저녁 들어야 했던 바스택(the Wife of Bath)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사악한 여성 이야기 모음집은 이미 대중화 되어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을 칭송하는 문헌도 공존했다. 말보드(Marbone)는 『제10장의 책』(*Liber Decem Capitulorum*)의 「여성」(De Matron)이란 소제목 하에서 선한 여성을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 칭송하고 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이 어머니, 요리사, 주부, 직조공 등으로 다양함을 말하면서 아무리 나쁜 여성도 유다보다 나쁘지 않으며 아무리 훌륭한 남성도 성모 마리아를 능가하지 못한다고 했다(Dalarun 28).

13세기 도미니크 교단의 교사였던 움베르트(Humbert de Romans)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교집 「모든 여성에게」(*Ad omnes mulieres*)에서 신은 여성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주셨는데, 다른 생명체는 물론 남성에 대한 우월성을 본질, 은총, 영광의 측면에서 부여하셨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이브, 성모 마리아, 막달레나, 빌라도의 아내를 예로 들고 있다. 이브는 흙에서 만들어진 아담과 달리 남성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남성과 동등하며 예수의 처형을 저지시키려 했던 빌라도의 아내, 예수가 부활 후 남자 제자가 아닌 막달레나에게 처음 그 모습을 보이신 것, 성모 마리아가 승천하시고 하늘의 여왕으로 자리하심을 근거로 여성의 우월성을 주장했다(Jarret 70-2).

여성에 대한 이런 상반된 태도는 상당부분 사이클극에서 그대로 반영되어 여성 인물들은 마리아와 그 반대급부의 여성들로 크게 양분된다. 마리아가 오른편에 있으면 왼편에는 이브, 노아의 아내, 막의 아내 질, 빌라도의 아내 프로클라 등이 있다. 두 부류에 속할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죄인이었으나 참회하고 속죄 받아 거의 성녀의 지위에 오른 여성인 막달레나는 사이클극에서 성모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다. 막달레나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이브와 마리아가 사악함과 성스러움의 양 극단의 모델이라면 막달레나는 죄를 지었으나 참회하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증거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브와 마리아 사이의 간극을 중재해주는 인물로서의 막달레나에 대한 숭배는 중세 후기에 최고조에 달했고 이런 숭배 문화가 사이클극에도 일정 부분 나타난다. 사이클극이 이브와 마리아라는

정형화된 두 여성상 이외에 막달레라라는 어느 한쪽에 속할 수 없는 제 삼의 여성을 비중 있게 극화함으로써 이분법적 여성상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II. 이브와 그 자매들

중세의 여성혐오 전통은 사이클극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 사이클극의 남성들인 아담과 요셉, 노아와 목동 등은 여성, 아내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테일러는 극중 남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브, 노아의 아내, 막의 아내 질 등이 여성 혐오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고 보았다(Taylor 155).

「아담과 이브」(체스터 2)에서 이브는 뱀의 유혹을 받고 금단의 사과를 먹은 후 아담에게 권하여 먹게 한다. 여기서 사탄은 뱀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나타나는데 그 모양새를 보면 상체는 새의 깃털을 달고 다리는 뱀의 모양을 한 여자의 형상으로 나타난다: A manner of an adder is in this place, / That wynges like a byrd she hase, / Feete as an adder, a maydens face. / Her kindenes I will take(2.193-6).¹⁾ 여자의 형상을 한 사탄의 모습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사탄과 뱀과 여자는 동일하다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탄의 목적은 인간을 죄짓게 하여 낙원에서 추방시키는 것이었고 아담과 이브 중 이브를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은 여자는 금지된 것을 원하고 쾌락을 추구하므로 유혹에 쉽게 넘어갈 것이란 판단에 근거한 것이었다. 선악과를 먹고 숨어있는 이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자 아담은 이브를 탓하고 이브는 뱀을 탓한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을 이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도덕적이지 못하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유약한 남편의 모습을 보인다. 아담은 이브의 잘못된 충고로 에덴동산에서 추방되는 것을 애통해하며 여

1) R. M. Lumiansky & David Mills, eds., *The Chester Mystery Cycle*, vol. 1. *EETS, Supplementary Series 3* (London: Oxford UP, 1974). 앞으로의 모든 본문 인용은 행수로만 표시한다.

자는 악마와 오누이 간이므로 남편들에게 여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여자를 믿지 말 것을 충고한다. 이브 이후로 모든 여성은 악의 화신으로 경계의 대상이 되고 여자는 남편에게 지배받아 마땅한 운명에 처한다.

네 사이클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 노아 이야기에서 노아 부인의 성격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아 부인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고집 세고’ ‘교활하고’ ‘사악한 아내’라는 것이었다(Kolve 148). N-타운 사이클에서는 성경에서처럼 순종하는 아내로 배 타는데 저항하지 않는다. 성경상의 순종하는 노아의 아내를 나머지 사이클극 작가들은 고집 세고 남편을 구타하는 왈패 이즘마로 형상화했다. 체스터 사이클에서는 노아 부인이 배를 짓는데 동네 여자들과 함께 목재를 가져오는 등 협조를 하지만 배에 타는 것은 거부한다. 그 이유로 자신의 친구에 대한 사랑을 말하면서 친구들을 죽게 나두고 혼자만 배에 탈 수 없다는 것이다. 여성의 우정은 무시당하고 아들들이 그녀를 강제로 배에 태운다. 이에 화가 난 노아 부인은 남편의 얼굴에 한방 주먹을 날린다. 요크 사이클에서 노아 부인은 땅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믿지 않으며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배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는 것에 불평한다. 집에 가서 자신의 물건을 가져와야 한다고 반발하고 자초지종을 말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집을 떠나 가정을 돌보지 않은 남편을 비난한다. 이에 노아가 신의 뜻이라며 변명하자 그를 때린다.

노아 부인의 성격을 가장 비중 있게 다룬 타운리 사이클의 경우, 아내가 배를 타지 않겠다는 이유가 더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다. 처음에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두려움을 비롯이나 곧 마음을 바꾸어 가재도구들을 묶는 일을 돕고 배 입구까지 간다. 그러나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댈다. 배의 모양을 맘에 들어 하지 않으며 가더라도 지금 하던 물레질을 끝내고 가겠다고 주장한다. 마침내 배에 강제로 배에 오르나 노아에게 대들다 그에게 맞는다. 노아의 아내는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자신이 남편보다 가족을 더 잘 부양할 수 있다면서 남편을 저주하고 죽기를 바란다.

노아는 아내의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에 대해 불평하면서(3.186-89) 젊은이

들에게 아내 길들이기에 대해 조언한다: 아내가 있는 남편들이여, 아직 아내가 젊을 때 / 만일 당신들이 잘 살고 싶다면, 아내들의 말을 다스려라 (Yee men that has wifis, whyls they are yong / If yu luf youre lifis, chastice thare tong; 3.397-8).²⁾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는 노아 부인의 행동-남편의 배짓는 일을 돕고, 친구와 함께 배를 타겠다고 주장하고, 남편의 황당한 홍수 이야기를 믿지 않고, 남편이 가정 일에 소홀함을 불평하고, 자신의 일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등-은 평범한 가정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아내의 모습이다. 자신이 하는 물레질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남편과 환관 육박전을 하지만 남편의 부재시에는 가정을 책임지는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다. 그러나 작가는 이런 노아의 부인을 남편에게 맞아 마땅하고 순종하도록 길들여져야 하는 아내로 설정하여 남성 중심적 가치관을 보인다.

노아의 아내는 그러나 일단 배에 오를 후에는 남편과 화해하고 순종하며 신을 섬기는 아내로 변신한다. 그녀는 남편과의 갈등과 홍수를 겪으면서 변화되는데 그 과정이 갑작스럽게 설정된 것은 작가의 초점이 노아에 있기 때문에 작가는 아내의 순종을 통해 남편 노아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노아가 상징하는 새롭게 구원된 교회와 세계가 올바른 질서 안에 세워지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성경에서 이름이 주어지지 않은 빌라도의 아내는 예수를 재판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그 무죄한 사람의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간밤에 저는 그 사람일로 꿈자리가 몹시 사나왔습니다”(마태 27.19)라는 전갈을 보낸다. 이 에피소드는 예수의 무고함이 이방인 여인에 의해 예언적 기능을 가진 꿈을 통해 알려진다는 의미를 갖는다.³⁾ 이런 성경상의 언급을 근거로 사이클극 작가는 프로클라를 재창조했다.

「빌라도의 꿈」(*Dream of Pilate's Wife*; 요크 30)에서는 빌라도와 프로클라의

2) A. C. Cawley, ed., *The Wakefield Pageant in the Towneley Cycle* (Manchester: U of Manchester P, 1958).

3) Matthew 27.19. 성경으로부터의 모든 인용은 *The Catholic Study Bible*, ed. Donald Senior (Oxford: Oxford UP, 1990)에 의거한다.

부부 관계가 다른 사이클과 달리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프로클라가 재판장에 나타나자 빌라도는 자신의 일을 멈추고 “오, 내 사랑!” 이라며 아내를 반긴다(30.25).⁴⁾ 프로클라 역시 자신의 남편은 명령에 불복하는 자를 사형에 처할 권력이 있으며 그런 권한을 가진 남자의 아내로 자신의 미모와 화려한 옷에 대해 자랑한다(30.37-45). 빌라도는 재판을 하는 공적인 자리에서 아내의 잠자리에서의 매력을 말하는 등 둘 사이의 사랑놀이로 화제가 바뀐다. 재판장 관리가 법정에서 여자가 나타나는 것은 위법이므로 퇴장해야함을 말하자 빌라도는 그의 충고에 이의를 달지 않고 받아드리고 화가 난 아내를 집으로 아들과 하녀와 함께 돌려보내면서 위로의 술을 권한다.

성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예언적인 꿈을 꾸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귀족 여성인 프로클라는 여성적 덕목에 반하는 여성이다. 아무리 귀족이라 해도 여성은 공적 장소에서 발언권이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것은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급 관리에 의해 법정에서 강제 퇴장당한 프로클라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누워 잠이 들고 꿈에 사탄이 나타나 프로클라의 허영심을 자극하며 사주한다. 울프의 지적대로 요크 사이클 작가는 이브와 프로클라의 유사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Woolf 245). 만약 예수가 죽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면 악마의 입지가 없어지므로 사탄은 프로클라에게 빌라도가 재판을 멈추도록 설득하라고 속삭인다. 프로클라가 예수 처형을 저지시키려고 한 행동은 예수를 구하려는 목적보다는 예수의 죽음이 남편 빌라도의 권력에 손상을 입힐까 두려워 한 행동이었다. 성경속의 프로클라는 예수의 무고함을 증거하기 위한 장치였으나 사이클극의 프로클라는 이브처럼 사탄의 사주를 받아 예수의 인류 구원을 방해하는 매체로 이용된다. 프로클라는 아들에게 빌라도에게 가서 꿈 이야기를 하고 예수를 풀어줄 것을 전하라고 하나 아들은 어머니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사탄은 이브의 경우와는 달리 프로클라를 통한 목적 달성에 실패한다.

프로클라는 남편의 잠자리 파트너로서는 인정받지만 공적인 일에서 그녀의

4) Richard Beadle, ed., *The York Plays* (London: Edward Arnold, 1982).

지위는 남편과 동등하지 않고 그 부하들보다 아래이며, 심지어 아들에게까지 무시당한다. 남편의 애정만 믿고 남편의 권위를 자신의 힘으로 잘못 판단하고 경거망동 하다가 거절당하는 프로클라는 순종하며 집안일을 잘 꾸려야 하는 여성의 덕목과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인물이며 자신의 한계에 반항하는 여성이다.

「두 번째 목자극」(*The Second Shepherd's Play*; 타운리 13)은 세 명의 목자들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그중 두 번째 목자는 추위와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불평하면서 자신의 아내에 대한 불만을 다음과 같이 털어 놓는다: 그녀는 고래처럼 큰 덩치에 / 한 갈론이나 되는 심술보를 지녔다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이름에 맹세코 / 그녀가 죽었으면 좋겠다네(*She is as greatt as a whall; / She has a galon of gall. / By him that dyed for us all, / I wald I had ryn to I had lost hir; 13.105-8*).⁵⁾

목동 일을 도와주는 막(Mak)은 두 번째 목동처럼 아내 질의 바가지 때문에 결혼 생활이 고통스럽고 게으르고 먹고 마시지만 하는 아내는 매해 아기를 낳아 이들을 모두 부양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불평한다(237-243). 그러나 아내가 게으르다는 막의 불평은 부당한 것이다. 질은 매해 출산으로 몸이 편할 날이 없었고 그럼에도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물레질을 하는 억척스런 여성이다. 막이 양을 도둑질 한 것 때문에 남편이 잡혀갈까봐 계락을 꾸미는 것도 그녀의 현실 대처 능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양을 훔쳐와 먹을 것이 생겼다고 좋아하는 철없는 남편과는 달리 절도에 대해 치러야 할 처벌이 끔찍함을 알고 있다: “By the nakyd nek art thou lyke for to hyng”(308).

질은 노아의 아내와 여러 면에서 흡사하다. 남편의 문 열라는 요구를 즉시 들을 수 없는 이유로 물레질을 끝내야 한다는 점이 그렇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비슷하다. 질도 노아의 아내처럼 남편을 돕지만 그 수단엔 거짓과 속임수이다. 질과 막은 생활고에 찌든 하층민 부부로 서로 싸우지만 일단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외부의 위협에 대처한다. 양을 잃어버린 목동들이 들이닥

5) A. C. Cawley, *The Wakefield Pageant in the Towneley Cycle* (Manchester: Manchester UP, 1958).

칠 수 있으니 자신이 방금 아기를 낳은 것처럼 속여 위기를 모면하자고 제안한다. 여기서 계락을 꾸미는 음모자의 역할을 여성에게 할당된다. 질은 출산의 고통을 호소하며 목동들에게 동정심을 구하고 그들의 질문을 막아보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 만일 자신이 양을 훔쳤다면 자신이 난 아기를 먹을 것이라며 오히려 그들을 협박한다(535-38).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아기를 먹겠다는 끔직한 발상을 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성모와 극한 대조를 보여준다.

질이 양을 포대기에 싸서 무릎에 안고 있는 모습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의 모습을 패러디하고 있다. 질의 출산을 믿고 돌아가려다 아기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돌아온 목자들에게 이들의 속임수가 들통나고 이에 대한 벌로 죽음이 아닌 막을 천 위에서 던지는 가벼운 처벌로 일련의 소동을 매듭짓는다. 이들 부부에 대한 처벌이 죄에 비해 가볍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일어날 예수 탄생의 축복과 화해의 정신이 작용한 것이며 이 극이 그리는 절도행위, 추위, 굶주림 등으로 고통 받는 세상이 앞으로 목동들이 경배할 구세주의 탄생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III. 성모 마리아

영국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숭배는 앵글로 색슨 시대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영국 문화와 정신에 깊숙이 침투되어 진 상태였다. 15세기에 이르면 마리아 숭배가 최고조에 달하고 성체성사극의 마리아도 기존의 마리아 숭배 문화의 측면을 반영하게 된다. 마리아는 처녀, 신부, 어머니, 여왕, 중재자 등 여러 역할을 모두 감당하는 완벽한 여성이며 마리아 숭배문화는 마리아를 기독교적 신비의 상징으로 만들었다(Warner 89).

남성중심의 가치관과 여성 혐오 전통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체스터 사이클이 하느님의 권위, 능력에 대한 강조를 통해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위

를 주장하는 반면에(Stevens 277). 마리아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N-타운 사이클은 마리아의 어린 시절부터 결혼과 수태고지의 과정을 자세히 다루어 마리아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킨다. 이는 따로 존재하던 소위 「마리아극」(*The Mary Play*)—*Conception of Mary*(N-타운 8), *Mary in the Temple*(9), *The Betrothal of Mary*(10), *The Parliament of Heaven and the Annuciation*(11), *Joseph's Doubt*(12), *The Visit to Elisabeth*(13), *The Assumption of Mary*(41)—을 사이클 안으로 흡수했기 때문이다.⁶⁾

나이가 많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요아킴과 안나 부부사이에서 기적의 은사로 태어난 마리아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함을 보여 세 살 때 이미 시편을 외우고 성전에서 교육받으며 성장한다. 「마리아의 결혼」(N-타운 10)에서 주교는 14세가 된 모든 젊은 여자들은 결혼해야 함을 공포하지만 마리아가 동정으로 남아있기를 고집한다. 이에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의 남편을 지팡이에 꽃이 피는 기적을 통해 알려줄 것임을 말한다. 요셉의 지팡이에 꽃이 피고 마리아의 신랑감으로 선택되자 그는 결혼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다. 자신은 이미 늙어 망령들 나이인데 젊은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전혀 즐겁지 않으며, 오쟁이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마리아와 결혼하는 요셉을 늙고 결혼 후에 아내의 부정에 노심초사하는 소심한 남자로 설정한 것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파블리오적 요소이다. 요셉을 파블리오의 젊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전형적인 늙은 남편처럼 의심 많고 이해심 없는 인물로 묘사하여 순수하고 고상한, 신앙심 깊은 마리아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하여 극의 중심인물인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다(Ashley 28). 또 요셉을 늙은이로 설정하여 결혼 후에도 남편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을 사람으로 함으로서 마리아의 순결이 손상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수태고지」(N-타운11)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그

6) Peter Meredith, ed., *The Mary Play from the N. Town Manuscript* (New York: Longman, 1987), 2. R. T. Davis, ed., *The Corpus Christi Play of the Middle Ages* (Totowa: Rowman, 1977), (100wa. Rowman, 1712).

리스도를 잉태할 것임을 알리자 마리아는 잠시 의심하는 모습을 보인다. 처녀인 자신이 어떻게 잉태할 수 있는지를 묻자 하느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다며 그 증거로 고통으로 출산이 불가능했던 엘리자베스의 임신을 알린다. 마리아에게서 구원자가 탄생할 것이므로 이를 수용할 것인지를 묻고 마리아가 동의하자 성령이 “세 줄기 빛”으로 그녀의 가슴에 내려온다. 마리아의 임신은 세 줄기 빛이 그녀의 가슴속으로 들어옴으로서 이루어진다. 마리아는 즉시 자신의 몸 안에 신이 아기의 형태로 들어왔음을 느끼고 크게 기뻐한다. 이때 가브리엘이 부르는 마리아에 대한 칭송 노래는 마리아의 정체성을 처녀이며 어머니, 하늘과 지옥의 여왕으로 규정짓는다(11.334-341). 여기서는 자유의지로써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마리아의 순종 덕목이 강조되고 마리아의 임신이 엘리자베스처럼 하느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짐을 말하고 있다.

「예수탄생」(N-타운 15)에서는 예수 탄생 사건을 중심으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기적들을 다루고 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 마리아는 체리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먹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체리가 너무 높이 달려있어 딸 수가 없자 마리아가 기도하니 체리 나무가 스스로 구부러지면서 따먹게 되는 기적이 그 하나요, 마구간에 여장을 푼 마리아가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요셉이 산파를 부르러 간 동안 아무 고통 없이 아기 예수를 낳는 기적이 그 두 번째이며 마지막으로 요셉이 불러온 산파 살로메가 출산한 마리아가 처녀임을 믿지 못하고 확인하자 손이 시들어 버리는데 마리아가 살로메에게 아기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해 낫게 하는 기적을 행한다. 마리아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 마리아의 능력과 이들을 출산하고도 처녀인 채로 남아있는 마리아의 신비가 강조된다. 신의 뜻에 따라 예수를 낳은 마리아는 사이클극에 등장하는 다른 어머니들, 속임수를 쓰며 자신의 거짓이 탄로 날것이 두려워 아기를 먹여치우겠다고 협박하는 질, 배를 타지 않음으로 자식들을 버릴 태세인 노아의 아내, 헤롯왕의 유아 처형령에 복수를 다짐하는 아이들의 어머니 등과 대조되는 인간적인 어머니이다(Normington 97).

「십자가 처형」(체스터 17)의 예수 처형장면에는 제자들 외에도 세 명의 마리아—성모 마리아, 글레오파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가 처형을 지켜본

다. 예수는 어머니에게 제자를 가리키며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라고 하고 제자들에게는 “이분이 내 어머니입니다”라고 말하고 숨을 거둔다. 이로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들이 상징하는 모든 기독교인의 어머니로 그 역할이 확대된다. 이때 성모의 울부짖음은 자식을 앞세우는 어머니로서의 고통이 처절하게 들어나고 있고 동시에 예수 수난의 비극적 파라독스를 이해하는 신앙적 깊이도 보인다.

처형 장면에 있던 세 명의 마리아가 그리스도에게 묶인 사슬을 끊고 처형을 중지케 하라고 읍소할 때 성모의 감정은 더 고조 확대된다. 64행에 달하는 마리아의 애가는 그리스도 스스로가 원한 수난에 대한 인간적 당혹감이 표현되어 있고 이런 애가를 통해 마리아의 슬픔은 일부나마 정화된다. 마리아의 눈물, 기절, 탄식, 십자가에 매달리며 떨어지기를 거부하는 몸짓 등 일련의 행동은 이미 죽어 움직임이 없는 그리스도와 대조를 이루어 더 생동감 있게 묘사된다 (Richardson & Johnson 77). 앞서 보았던 마리아의 초자연적 능력과 더불어 지극히 인간적인 고통이 공존하는 마리아를 강조함으로써 그녀의 이중성 내지는 모호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예수의 죽음 직전에 요한이 예수 부활에 대한 위로의 말을 하며 마리아를 데리고 나간 후 마리아는 성전에서 죽을 때까지 있었고 그녀의 승천은 성전에서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승천하고 대관식을 하는 장면(「성모 승천과 대관식」, 요크 47)에서 예수는 마리아가 하늘의 여왕으로 천사들의 예배를 받아야 함을 말한다. 이제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이 되고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가 된다. 마리아의 대관식에서 예수는 성모에게 말한다: “모든 창조물 앞에서 / 당신에게 은총과 권능을 드립니다. 당신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Before all other creatours / I schall the giffe both grace and might / In hevене and erthe to send socoure / To all that servis the day and nyght; 47.45-8). 천사들도 마리아의 다섯 가지 기쁨을—예수 잉태, 출산, 예수 부활, 예수 승천, 성모 승천—노래하는데 이는 오직 아들 예수와 연관된 것으로 어머니의 완벽한 모습이 강조된다.

IV. 이브와 성모의 경계를 넘어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성경 속에서 성모 마리아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여성이다. 막달레나는 규정짓기 어려운 모호성을 가진 여성으로 네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고 그 역할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네 복음서에서 막달레나에 대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그녀가 예수 부활을 최초로 목격했다는 것이다.

성경상의 막달레나에 대한 기록을 보면 우선 여자 제자로서의 막달레나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 나온다. 예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자들로 마리아 막달레나, 야고보의 엄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고 이들 여성들은 예수가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 그를 따라다녔고 먹을 것을 가져왔으며 이들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가 15.41).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설교 여행을 다닐 때 여러 여자들도 함께 동행했는데 이들 중 일곱 마귀가 나간 막달라 마리아, 헤로데의 신하 쿠자의 아내 요안나, 수잔나 등이 있었고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바쳐 예수 일행을 도왔다고 전하고 있다(누가 8.2-3). 일곱 마귀가 나가고 병 고침을 받은 후 막달레나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지키면서 예수의 체포, 죽음 부활을 전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일곱 악마의 시달림을 받다가 벗어난 후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라다녔고 그녀처럼 귀신 또는 병을 치유 받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고 골고다까지 따라 간다. 막달레나는 이들 추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는 예수를 지켜보고 예수가 무덤으로 옮겨지자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 해뜰 무렵 무덤을 찾아가 비어 있는 무덤을 본다.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리러 무덤을 떠나고 막달레나만 울면서 남아있는데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 왜 우냐고 묻자 주님을 어디에 데려갔는지 몰라서 운다고 한다. 그 때 예수가 나타나는데 막달레나는 그를 정원사로 착각한다. 예수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그분이 예수인줄알고 만지려하나 못하게 하고 자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한다. 막달레나는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한 제자중의 제자로

예수의 부활을 알리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베다니의 막달레나는 매춘부로 누가복음에 의하면 갈릴리에 있는 한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의 발치에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카락으로 말려주고 향수를 뿌려주는 여인이다(누가 7.37-48). 이를 본 바리새인이 말하길, 당신이 예언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줄 알았을 것이라고 하자 예수는 그녀가 보인 사랑으로 죄를 용서받았노라고 한다. 요한복음(11.1)도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름을 마리아로 명시하고 마르타와 나자로의 자매로 나자로가 죽었을 때 애통해하며 예수의 도움을 청하는 여인이다(요한 11.19-20, 28-33).

예수의 처형, 매장과 부활을 목격한 막달레나, 베다니의 창녀로 예수에게 향유를 붓고 죄를 용서받은 막달레나, 나자로와 마르타의 누이인 막달레나 등 이들이 성서 상으로 한 인물인지 서로 다른 인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들 막달레나의 공통점은 예수에게 무릎 꿇어 향유를 붓고 예수를 사랑하며 경배하는 여성들이란 점이다. 이런 혼란에 대해 6세기에 그레고리 교황(590-604년 재위)은 누가가 죄인이라고 한 여인, 요한이 마리아라고 부른 여인, 그리고 마가가 말하는 일곱 귀신에게서 풀려난 여인을 모두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른다(Haskins 16). 그래서 막달레나는 마르타와 나자로의 누이이며 일곱 귀신으로부터 풀려난 여인이며 시몬의 집에서 예수의 발을 씻겨준 여인이다. 중세에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이 세 여인을 한명의 막달레나로 받아들였다.

사이클극이 성경 상에 나타난 막달레나의 세 가지 역할내지는 이미지를—부활을 목격한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 막달레나,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레나—어떻게 구체화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사이클극의 막달레나는 성경상의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나자로」(타운리 31)에서 마르타가 나자로의 죽음을 예수에게 알리고 집으로 청하자 예수는 나자로가 살아날 것임을 말하고 자신이 온 것을 막달레나에게 전하라고 한다. 오빠의 죽음을 애도하는 막달레나에게 예수는 너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왔노라고 하면서 장사 치른 지 사흘이 지나 이미 부패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막달레나에게 믿음을 가지면 나자로가 살아날 것임을 말한다. 여기서 예수와 막달레나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칭한 이는 마르타인데 정작 예수는 막달레나를 찾고 있고 나자로를 살리는 것이 막달레나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막달레나의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자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 만찬」(N-타운 27)에서는 성목요일을 보내기 위해 시몬의 집에 온 예수를 기다리던 막달레나는 죄 많은 자신을 용서해주기를 청하면서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긴다.

이 나라 전체에서 저처럼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은 없습니다.
 저는 늪지대와 숲에서 더럽혀졌고
 여러 도시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만일 당신께서 구원해주시지 않으면
 검은 악마들의 괴롭힘으로 불에 탈 것입니다.

Ther was nevyr woman of manny kynne
 So ful of synne in no countré.
 I have be-fowlyd be fryth and fenne,
 And sowght synne in many a cete,
 But thou me borwe, Lord, I xal brenne,
 With blake fendys ay bowne to be. (27.156-161)

예수는 막달레나의 믿음을 보시고 일곱 악마를 그녀의 몸에서 쫓아내신다. 이를 본 유다가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자 이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조의를 표하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설명한다. 여기서 막달레나는 예수의 마지막 설교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듣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토론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가 체포되어 끌려가자 이를 지켜보던 막달레나는 성모

마리아에게 달려가 체포 소식을 전한다(「배신」, N-town 28). 제자들 중 누구도 마리아에게 예수 체포 소식을 전해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막달레나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마리아와 막달레나의 친분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수가 부활한 후 세 명의 마리아-마리아 막달레나, 마리아 야곱,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의 몸에 발라드릴 향유를 사가지고 무덤을 찾아간다(「부활」, 타운리 26). 세 여인 중 막달레나가 가장 슬퍼한다. 막달레나의 눈물은 그녀의 예수에 대한 사랑과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다.

아, 슬픔으로 죽을 것 같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을 없을 것이네.
내가 본 광경으로 인해
눈물이 나고 온몸이 떨려오네.

.....

아, 내가 그분의 고통을 보고
그분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보다니.

Alas, to dy with doyll am I dyght!
In warld was never a wofuller wight;
I drope, I dare, for seyng of sight
That I can se;

.....

Alas, that I shuld se hys pyne,
Or that I shuld his lyfe tyne, (26.334-7, 340-1)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어 안으로 들어간 막달레나는 흰 옷을 입은 두 명의 천사를 보게 된다. 천사로부터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들은 세 여인 중 막달레나를 제외 한 두 여인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퇴장하고 막달레나만 남아 예수의 죽음을 슬퍼한다.

그 분께서 처형된 것은 그 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저를 위해 피 흘리는 고통을 겪으신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
 저를 기쁘게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It was my gylt he was fortayn,
 And nothing his.
 How myght I, bot lufyd that swete
 That for me suffred woundys wete,

.....

Ther is nothyng till that we mete
 May make me blythe. (26.422-429)

홀로 무덤을 지키던 막달레나에게 예수가 나타나지만 막달레나는 예수를 정원지
 기라고 생각한다. 그가 예수의 시체를 옮겨놓은 줄 생각하고 시체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하자 예수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그 사람과 어떤 관계인지를 묻는
 다. 이에 막달레나는 직답을 피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다.

예수: 자, 그가 너에게 어떤 사람인지를
 진실로 말해 보아라.
 막달레나: 아, 그분은 저의 . . .
 저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마리아야, 네가 찾는 하느님이 바로 나다.

Jesus: Why, what was he to the
 In sothfastnes to say?
 Magdalene: A, he was to me—
 No longer dwell I may
 Jesus: Mary, thou sekys thy God, and that am I.
 (26.583-587)

막달레나는 예수의 발에 키스하게 해달라고 청하나 예수는 아직 아버지를 뵈기 전이라며 허락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해석은 막달레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방인 교회에 속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거나 아니면 남자 제자만이 예수와 하느님의 동등함을 알 수 있다고 여겨서 거절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론 막달레나는 예수를 사랑했지만 남성으로, 육적으로 사랑했기에 그녀의 청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아퀴나스는 여성도 영혼을 가졌다는 측면에서는 남성과 동등하나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주관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장면의 막달레나 이야기를 예로 든다. 막달레나가 최초의 부활 목격자임에도 부활 소식을 대중에게 전파, 설교하는 것은 남자 제자들의 몫으로 남긴 것은 여자는 믿음을 전파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수 부활을 막달레나가 홀로 목격한 것은 주님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으로 남자 제자들과 달리 무덤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여성에게 처음 나타나신 것은 여성이 인간에게 죽음을 처음으로 가져다준 존재이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리는 최초의 존재여야 함을 뜻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여성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III. 55.1, 6).⁷⁾

아퀴나스의 남성 편향적 해석은 막달레나에게서 남자 제자들과 달리 대중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여자의 사제 역할을 박탈했지만 예수가 막달레나에게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을 알리라고 한 것은(“Myn erand shall thou grathyl go”; 26.603) 막달레나의 최초의 부활 목격자 및 설교자로서의 임무를 부여한 것이다. 막달레나와 예수의 친밀한 관계는 예수가 그녀에게 나타나심으로 증거하고 있고 막달레나는 자신이 혼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는 기쁨에 행복해한다.

저에게 축복이 오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분을 저 혼자 만났습니다.

7) Thomas Aquinas, *The Summa Theologica*,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Christian Classics, 1981).

어느 누구보다도
 온 몸으로 행복합니다.
 처형당하셨던 그분이 이제 부활하셨기에
 제 가슴은 뽕니다.

Mi blys is commen, my care is gone,
 That luffly have I mett alone;
 I am as blyth in bloode and bone
 As ever was wight;
 Now is he resyn that ere was slone,
 Mi hart is light. (26.619-624)

막달레나는 예수의 제자 중 유일한 여성으로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며 그녀의 사랑을 예수도 인정하고 있다. 막달레나는 부활한 예수로부터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받는다. 타운리 사이클만이 막달레나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극화하고 있다(*Thomas of India*, 타운리 28). 베드로와 바오로는 부활을 전하는 막달레나에게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며 그녀의 말을 거짓으로 몰아세운다. 여제자로서의 막달레나는 동료 남자 제자들에 의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신뢰받지 못하고 배척당한다.

매춘부이며 죄인인 막달레나가 존경 받는 여성의 모델로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것은 일반 여성들이 본받을 수 없는 완벽한 성모와 달리 죄를 지었지만 예수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용서와 구원을 받는 여성이란 점이다. 막달레나는 일반 여성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국한된 생활을 하는 것과는 달리 집 밖의 공간에서 자유로이 다니며 한 남자의 아내이거나 어머니라는 역할이 아닌 자신의 정체성을 추구한 독립적 여성이다. 이런 과정에서 막달레나가 겪은 시련과 고통은 신앙심과 사랑으로 승화된다. 육체적인 몸이 나타내는 세속성과 신앙심, 참회와 경건함에서 보이는 성스러움이 결합된 복합성을 지닌 막달레나는 중세 15세기 후반 혹은 16세기 초반에 이르면 성인 반열에 오르고 그녀를 주인공으로 다룬 성인극 『마리아 막달레나』(*The Digby Mary Magdalene*)가 공연되기에 이른다.

V. 결론

중세 사이클극의 여성 인물들은 성경 속에서 형상화된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사이클 작가들은 성경 상에 나오지 않는 많은 부분을 극화시키고 있다. 사이클극의 여성 인물들을 이브와 성모 마리아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읽을 때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이런 구분에 적용할 수 없는 막달레나를 이 두 여인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여성, 죄를 지었으나 예수에 대한 사랑으로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여성으로 보았다.

아담을 죄짓게 유혹한 이브,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겠다고 반항하며 남편을 구타하고 남편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노아의 아내, 사탄의 사주를 받아 남편 빌라도의 재판에 관여하려는 프로클라, 막이 훔쳐온 양을 자신이 출산한 아기인양 속임수를 쓰는 질 등이 사악한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이들의 공통점은 여성이 혼자 독립적인 개체로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닌 남편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아내라는 점이다. 그러나 교회나 남성 중심적 시각이 아닌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이브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서 신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남편에게 그런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한 배려에서 한 행동이었으며 노아의 아내는 가정을 돌보지 않고 수년 동안 배 만드는 일에만 전념하는 남편 대신 물레질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강한 생활력과 홍수라는 위협에서 자신의 친구들을 버리고 혼자만 살수 없다는 자매애를 보이는 여성이다. 프로클라도 남편이 무고한 예수 처형에 가담하여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되어 한 행동이며 질은 남편이 양 도둑으로 잡혀 교수형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속임수를 고안한 것이었다. 이들의 남편을 위한 적극적 행동을 작가는 사탄에게 사주를 받아 혹은 여성 자신의 교활함, 탐욕, 사악함으로 인해 아내의 덕목을 위반한 여성들로 보고 남성 관객에게는 아내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여성 관객에게는 이들을 닮지 말 것을 충고한다.

사이클극 작가가 이브형의 여성을 극화할 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을 많이 삽입한 것과 달리 사이클극의 성모 마리아는 중세 신학이 형상화한 인물들

충실히 반영한다. 성모 마리아는 다른 여성들과는 다를 뿐 아니라 우월한 인물로 신의 은총을 받아 탄생했고 범상치 않았던 어린 시절, 성령으로 구세주를 잉태하고 낳았지만 처녀인 채로 남아있는 여성이다. 또한 마리아는 아들의 십자가 처형을 보면서 아들을 앞세우는 어머니의 처절한 고통을 겪은 후에 죽음, 승천을 거쳐 하늘의 여왕으로 등극하는 인물이다. 사이클극 속의 성모 마리아는 예수 처형 장면에서 가장 극적으로 다루어진다. 성모의 오염은 그녀의 초인간적인 능력도 그녀의 인간적인 고통을 초월할 수 없음을 보여 성모의 인간적 면모를 강조한다.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의심하는 모습, 남편과의 갈등, 아들을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아들의 체포 소식을 듣고 죽음을 목격하고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 등은 일반 여성과 크게 다르지 않게 형상화된다. 성모는 우월성과 능력을 가졌지만 위협적이지 않으며 그녀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는 역할에서 나오는 힘이다. 마리아가 칭송 받는 것은 신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며 그녀의 힘은 수동성과 자기 부정에서 나온 것이어 가능한 것이다.

성모 마리아 경배가 중세 후기에 이르면 그 관심이 막달레나에게로 이동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런 추세가 사이클극의 막달레나를 형상화하는데 반영된다. 막달레나는 나자로의 누이로 오빠의 죽음을 애도해하며 그의 부활을 예수께 청하는 여인, 시몬의 집에서 향유로 예수의 발을 씻겨드리고 일곱 악마의 괴롭힘으로부터 예수의 치유를 받는 여인, 예수가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성모에게 전해주는 여인, 예수가 부활한 후 무덤에 찾아가 예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슬퍼하다가 부활한 예수를 최초로 만나는 여인,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는 여인으로 극화된다.

막달레나는 기존의 성모 마리아와 이브라는 두 부류의 여성상이 지닌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극복하는 여성이다. 막달레나는 한 남자의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여성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일곱 마귀에게 시달림을 받지만 예수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구원받고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산 여성이다. 막달레나는 세속의 죄를 지었지만 구원받는 여성상을 보여줌으로써 일반 여성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인물로 여성 관객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

러나 예수의 여 제자로서 다른 사도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설교자의 역할은 형상화되지 않는다.

주제어: 사이클 드라마, 이브, 성모 마리아, 막달레나, 여성상, 여성혐오전통

인용문헌

Texts:

The Catholic Study Bible. Oxford: Oxford UP, 1900.

The Chester Mystery Cycle. Ed. R. M. Lumiansky & David Mills. *EETS*.
Oxford: Oxford UP, 1974

The Corpus Christi Play of the Middle Ages. Ed. R. T. Davis. Totowa:
Rowman, 1972.

Summa Theologica. Thomas Aquinas. Trans. Fathers of the English Dominican
Province. Christian Classics, 1981.

The Wakefield Pageants in the Towneley Cycle. Ed. A. C. Cawley. Manchester:
Manchester UP, 1958.

The York Plays. Ed. Richard Beadle. London: Edward Arnold, 1982.

Secondary Sources:

Ashley, Kathleen M. "Medieval Courtesy Literature and Dramatic Mirrors of
Female Conduct." Ed. Nancy Armstrong and Leonard Tennenhouse. *The
Ideology of Culture*. New York: Methuen, 1987. 25-38.

- Dalarun, Jacques. "The Clerical Gaze." *A History of Woman in the West: II. Silence of the Middle Ages*. Ed. Christiane Klapisch-Zuber. Cambridge, Mass.: Belknap P, 1992. 15-42.
- Duby, George. *Women of the Twelfth Century*. Vol 1. Trans. Jean Birrell. Chicago: U of Chicago P, 1997
- Haskin, Susan. *Mary Magdalene*. London: Harper Collins, 1993.
- Jarret, Bede. *Social Theories of the Middle Ages, 1200-1500*. New York, 1966
- Kolve, V. A. *The Play Called Corpus Christi*. Stanford: Stanford UP, 1966
- Meredith, Peter, ed. *The Mary Play from the N. Town Manuscript*. New York: Longman, 1987
- Normington, Katie. *Gender and Medieval Drama*. Cambridge: D. S. Brewer, 2004.
- Potter, Lois, ed. *The Revels History of Drama in English: Medieval Drama*. Vol. 1. London: Methuen, 1983
- Richardson, C. and J. Johnson. *Medieval Drama*. London: Macmillan, 1991.
- Stevens, Martin. *Four Middle English Mystery Cycles: Textual, Contextual and Critical Interpretations*. Princeton: Princeton UP, 1978.
- Taylor, Jerome. "The Dramatic Structure of the Middle English Corpus Christi, or Cycle, Plays." *Medieval English Drama*. Ed. Jerome Taylor and Alan H. Nelson. Chicago: U of Chicago P, 1972. 148-56.
- Warner, Marina. *Alone of All Her Sex: The Myth and Cult of the Virgin Mar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76.
- Wolf, Rosemary. *The English Mystery Play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72.

Women in English Cycle Plays

Abstract

Jung-ai Kim

Medieval cycle plays portray a few women characters in the entire cycle since they mainly focus on the Nativity and the Passion of Christ. The fact that women characters can be easily divided into the familiar dichotomy of Eve and the Virgin as they are represented in the Bible seems there's no room to develop the feminist approach to the cycle plays. However the authors of the cycle play do not simply follow but develops the characterization of women in the scripture. The images of women depicted by the cycle plays derives and departs from the Bible and the European tradition socio-economic factors of the late middle age.

In the cycle plays, Eve, Noah's wife, Gill, Procula are rebuked by their husbands for being unruly, outrageous, garrulous, disobedient, recalcitrant, shrewish, malicious. These complaints of husbands can not be justified in terms of women's point of view. Eve, the victim of Satan, asked Adam to eat the Forbidden Apple which she thinks makes him wise. The conflict between Noah and his wife which shows a shocking amount of spousal violence reflects the tension between husband and wife in the late medieval society. Her refusal to enter the ark is not that of a shrew, but as a woman attempting to find an identity and preserve her family even in the absence of husband. This reflect the changing and expanded role of women at that time. Procula, the wife of Pilate, refuses to remain silent and transgresses her role as the governor's wife. Procula, like Eve, is visited by Satan who through her tries to influence the judgment of Pilate. Speaking her dream Procula tries to protect her husband

from being involved in the crucifying innocent Jesus. Gill, the wife of Mak, plays the role of trickster to protect Mak from hanging. She even affirms her innocence by swearing she would eat her own newborn if she were guilty of gulling the shepherds. She parodies the seated Madonna with the Christ child on her knee.

Unlike the Eve type women, the Virgin Mary of the cycle plays faithfully reproduces the theological view of the Church. The Virgin Mary is the sum of a chaste virgin, a bride, a mother, the Queen of the Heaven and the intercessor. The Virgin, facing the crucifixion, comprehends the tragic paradox of the blissful Passion. She is defined primarily through her separateness from and superiority to women as well as her humanness. Mary Magdalene, the most interesting women character in the cycle plays, transcends the dichotomy of Eve and the Virgin and combines the earthliness and holiness. Magdalene is a conflation of three separate figures: she is made to be not only the sister of Martha and Lazarus but also the woman from whom seven devils were expelled and the penitent who washes Jesus' feet with her hair at the house of Simon. Above of all, as the great lover of Jesus, Magdalene is a faithful disciple, the first to see the resurrection. Magdalene as a penitent and a disciple contributes the feminization of the late medieval piety.

Key Words

cycle play, Eve, the Virgin, Mary Magdalene, image of woman, misogyny